

영암군·전남개발공사 '영암 모터피아' 업무협약

모터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공동 추진키로 "관광 랜드마크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영암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난 4월 선정된 문체부 공모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서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F1경주장 활성화, 스포츠관광메카 영암 만들기, 지역 새로운 먹거리·일자리 창출 행사 개최·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공동노력으로 유치한 문체부 공모에 따라 2023~2025년 매년 영암군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에 10억원씩을 투입해 다양한 대회·체험·축제·교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무대로 F1 전 국가에인사이클대회, F1 전국마라톤대회, F1 전국드루에슬론대회, 전국 대학생 포물러 자작 자동차대회, 카트 체험, 모터스포츠 VR & 4D 체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체험, 전국 베스트 튜닝카 선발대회, 2023 모터 뮤직 페스타, 안전 운전 교육 등이 계획돼 있다.

영암군과 전남개발공사는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모터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으로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의 영암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부대



사업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과 F1국제자동차경주장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 소비활성화 업무 협약

목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과 11일 수산물 가격안정과 소비 활성화 등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산물 소비 위축 심리가 조성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매주 수요일을 수(수)산물데이로 지정해, 구내식당과 가정에서 수산물 먹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양기관 전 부서 직원의 수산시장 및 횡집 이용을 독려하고 추석 명절에는 공직자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이를 해소하고자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합동으로 전개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수산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해제면,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부식 지원

29세대 부식전달 및 안부확인

무안군 해제면(면장 하영미)은 지난 11일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29세대에 부식 전달 및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방학 중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가정방문하여, 아동들이 선호하는 밀키트 및 식품 등을 전달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부를 확인했다.

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동 보호자는 "생계 어려움으로 부식 구입에 어려움이 많아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선한 식

품 등을 전달해줘서 아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하영미 해제면장은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 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상·하반기 학기 중과 여름·겨울 방학 중으로 나누어 부식이 지원되고 있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이동편의 '치매안심택시' 운영

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모범택시운전자회(회장 박경남)와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치매안심택시는 치매안심센터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으로 치매감진사업과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정밀검진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시간과 정밀검진 예약시간에 준해서 운행된다.

또한, 사업운영의 내실화와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으로 치매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신안1004몰' 천일염 기한 없이 지속적 판매

신안군은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에서 신안천일염 10kg을 1인당 2개씩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천일염의 80%이상을 생산하는 신안군이 직접 나서 신안1004몰에서 천일염 10kg에 19,000원에 판매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어 천일염 생산에 문제가 없어 필요한 시기에 천일염을 구입해도 되지만, 천일염을 급히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이 공급하기 위해 신안1004몰에서 신안천일염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포장재(20kg PP포대)를 박스화, 규격화(3kg, 5kg, 10kg)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생활방식 등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선택포식을 가졌다. 신안=이택주기자

함평군, 유용미생물 무인 안내기 운영

함평군은 농민의 미생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에 화면 접촉 방식의 무인 안내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 안내기는 농가주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 후 원하는 미생물을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미생물 수령 희망일 예약까지 가능하다.

현재 함평군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약취 저감균 등 5종류의 미생물을 주 2회(수·목요일)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 유용 미생물들은 토양의 작물생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발생 빈도를 낮추며 특히 축산업에 이용 시 악취와 가축 질병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번 무인 안내기 설치로 신청과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농업인들의 신청 시 불편함이 개선되고, 군은 높은 품질의 미생물 공급에 노동·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농업인이 유용 미생물의 효능을 인지하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